

광주은행, 전남 치매어르신·아동 위해 5억5천만원 기탁

배회감지기 3억 5천만원 상당 1천200개... 3년째 나눔실천 교구 구입 등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후원 2억 원도

전라남도는 21일 광주은행이 치매어르신 실종예방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5억 5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고병일 광주은행장, 김동국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변정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기탁금 가운데 3억 5천만 원은 전남 사회서비스원과 광역치매센터를 통해 치매어르신을 위한 배회감지기 1천200개를 보급하는 데 사용된다.

배회감지기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탑재해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치매어르신 실종 시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에 유용하며, 위급 상황 때는 구조 요청 자동 호출 기능도 갖췄다. 이를 통해 실종 치매자 발견 시간이 평균 12시간에서 40분으로 단축되어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광주은행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

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하도록 환경개선 지원 후원금도 2억 원 기탁했다.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후원금으로, 18개 시군, 21개소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개·보수, 교구 구입 등에 활용된다.

그동안 광주은행은 전남 치매어르신과 지역 아동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했다.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스마트워치) 지원을 위해 2023년 8천800만 원(300개), 2024년 3억 5천만 원(1천200개)을 기부하는 등 3년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후원금을 기탁, 14개 시군 19개소에 총 1억 8천만 원이 지원돼 아동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줬다.

김영록 지사는 "광주은행의 따뜻한 나눔으로 치매어르신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사는데 큰 힘이 되고 있고, 아이들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학습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1일 도청 접견실에서 광주은행 고병일 은행장으로부터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지원금 3억 5천만 원을 기탁받고 있다.

하게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치매어르신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아동이 꿈과 희망을 키우도록 지역아동센터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해 지금까지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1만 6천894명 ▲배회감지기 보급

2천8대 ▲지문 등 신상정보 사전등록 2만 3천378명 ▲시군 및 경찰·소방·주민들이 참여하는 치매실종예방 합동 모의 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족과 지역사회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안정적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호봉제 도입과 특별수당 지급 등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염선호 기자



나주시, '꽃중년 일기'로 중장년층 정신건강 살핀다

노인재가복지센터 종사자 대상 '중장년기 마음 건강 프로그램' 호평

전라남도 나주시보건소 정신건강센터는 중장년기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8월부터 9월까지 관내 노인재가복지센터 5개소를 대상으로 중장년기 정신건강 지원사업인 '꽃중년 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젤노인복지센터, 행복재가센터, 복음자리노인복지센터, 드림노인복지센터, 더좋은 노인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나주 시민이 생애주기별 스트레스에 적응하며 개인의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신건강 교육(우울, 자살), 정신건강 검사(옵니핏, 스트레스 체크, 우울증 선별검사 등), 힐링 프로그램(향수, 공예) 등을 제공한다.

중장년기에는 신체적 변화와 퇴직, 자녀의 분가 등 사회, 가정적 요인 등으로 인해 우울감을 더욱 심하게 느끼게 되는 시기이다. 하지만 사회적 체면이나 주변의 시선을 두려워해 병원 방문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빠른 치료와 회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센터에 방문해 상담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일하고 가정을 돌보느라 나를 돌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렇게 나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검사도 해보고 1시간 동안 내가 좋아하는 향을 찾기 위해 집중해 보는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쓰는 것 같아 좋았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함평군 월야면 복지기동대, "생활 속 화재위험 잡는다"

119생활안전순찰대 협업... 화재 예방 교육 등 안전한 월야면 조성

전남 함평군 월야면 복지기동대와 119생활안전순찰대가 협력해 주민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함평군은 20일 "월야면 복지기동대와 119생활안전순찰대가 지난 14일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화재 예방 조치에 나서며 주민 안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복지기동대와 119생활안전순찰대는 노후 멀티탭을 최신형 자동소화 멀티탭으로 교체하고, 주민들에게 화재 초기 대응 요령과 소화기 사용법을 안내했다.

또한 가스타이머 설치 여부와 배관 안

전상태를 점검하며 생활 속 안전 위험을 미리 차단했다.

아울러 월야파출소도 동참해 취약계층 안전 순찰과 범죄예방 수칙 교육을 병행하며 주민 안전 확보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정정오 월야면 복지기동대장은 "이번 활동은 전기와 가스 안전뿐 아니라 생활 안전 전반까지 살핀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명희 월야면장은 "주민 안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복지기동대와 119생활안전순찰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군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각적인 복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월야면 복지기동대는 집수리·생

활안전 점검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119생활안전순찰대와 협력해 취약계층 생활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꾸준히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함평/전광춘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웃에게 기부합니다"

서구, 서창동 청년으로부터 시작된 착한 기부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이 본인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해 훈훈한 나눔의 물결을 일으켰다. 서구는 서창동에 거주하는 한 대학생의 선행이 부모는 물론 서창동장과 직원들의 기부 동참으로 이어져 100여 만원의 성금이 모였다고 21일 밝혔다.

이 성금은 최근 집중호우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 서창동은 삼계탕 밀키트, 라면, 김, 간편죽, 젓갈 등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된 식품 꾸러미를 마련해 독거 어르신 및 취약계층 25세대에 전달했다.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낸 대학생은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면서도 "착한도시 서구에 사는 서구민으로서 주변의 선한 영향력을 보고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기부의 마음이 생겼다"며 "앞으로도 내가 가진 재능과 노력을 통해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고 기부 소감을 전했다.

정소현 서창동장은 "한 청년의 선행이 주민과 공직자의 나눔으로 확산돼 더 큰 울림을 줬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순천시, 청소년과 어르신 마음을 잇는 특별한 재능기부 선사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순천시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이 지난 14일 용당주야간보호센터와 린제노인복지센터를 찾아 따뜻한 재능기부 공연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한 연극과 악기연주를 통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면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를 청춘 감

성으로 재해석한 연극 무대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어서 칼림바와 우쿨렐레 연주에서는 경쾌하고 밝은 멜로디로 감동을 더했다.

공연에 마친 청소년들은 어르신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라는 마음을 전했고, 어르신들도 덕담으로 화답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순천/정성인 기자



2025 장성 방문의 해

국내 최대 규모 인공조림
축령산 편백숲

장성이 보내온 힐링 초대장